한솔제지 고객사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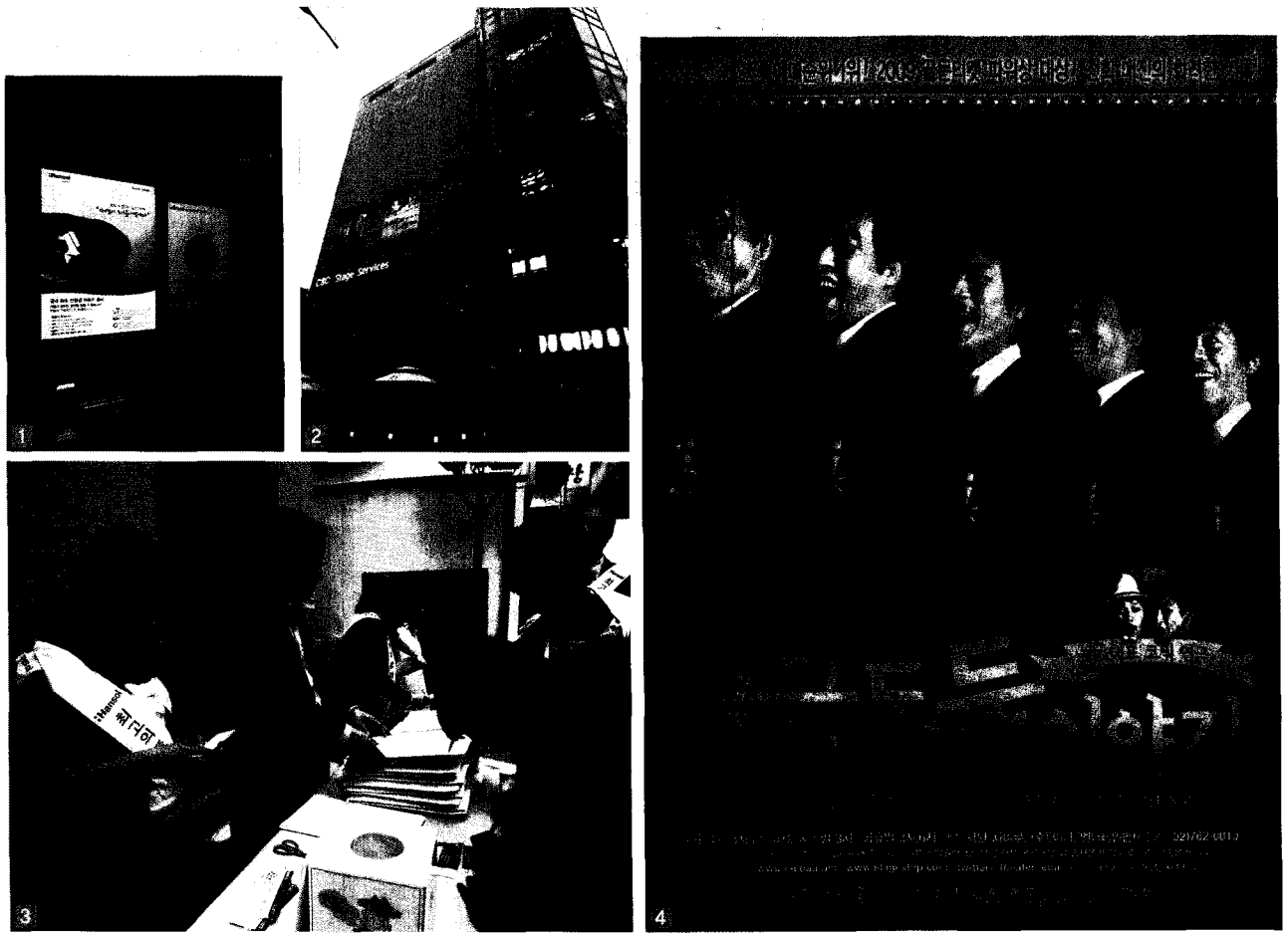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관람

한솔제지는 지난 5월 25일 7시부터 고객사를 대상으로 연극 늘근도둑이야기를 관람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연극 관람에 앞서 한솔제지는 자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종이에 관련된 퀴즈시간을 가져 정답을 맞추는 고객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 또한 연극관람 후에도 10명을 추첨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했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연극 '늘근도둑이야기'는 학생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참가자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연극이었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늘근도둑이야기〉는 민감한 최신 시사현안을 뼈있는 웃음으로 전달하여 시대에 맞는 시사풍자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늘근도둑이야기〉는 시대의 답답한 정치, 경제 현안들을 다루며 마음의 가려움증을 박박 긁어 주는 시사풍자와 더불어 '두 늙은 도둑'의 인간적인 모습에도 집중하여 웃음과 함께 잔잔한 감동까지 더해주고 있다.



1~2. 한솔제지 문화행사가 진행된 대학로아트원씨어터아 3관 차이무극장 3. 입구에서 초대권과 연극표를 교환해주고 있는 한솔제지 직원들
4. 2011늘근도둑이야기 포스터 5~6. 연극'늘근도둑이야기' 공연모습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작 이상우
연출 민복기
공연기간 2011년 2월 11일 Open
공연장소 대학로아트원씨어터 3관 차이무극장
공연시간 화수목금 8시 / 토 4시, 7시 / 일 3시 / 공휴일 3시, 6시
제작 극단 차이무, (주) [이다.] 엔터테인먼트

늘근도둑이야기 줄거리

깜깜한 밤. 갑자기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고 몇 개의 불빛이 극장 안을 채운다. 바로 사회에서 보다 형무소에서 더 오랜 세월을 살아 온 두 늙은 도둑이 그들이다. 이 두 늙은 도둑은 감옥에서 대통령 취임 특사로 풀려 나온 후,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한탕을 하기 위해 그 분의 미술관 내부에 잠입하게 된다.

그 분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엄청난 권위를 자랑하는 분으로, 그 집에는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들의 가치를 모르는 두 도둑은 그 분의 금고만을 찾는다.

금고를 찾은 두 도둑은 경비견이 잠들어야 금고를 털 수 있다고 판단해, 경비견이 잠들기만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두 도둑은 금고를 앞에 두고 옥신각신 끊임없이 다투다 결국에는 경비견에게 걸리고 만다.

결국 경비견에게 잡힌 두 늙은 도둑은 조사실에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는다. 있지도 않은 범행배후와 있을 수도 없는 사상적 배경을 밝혀내려는 수사관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두 늙은 도둑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두 늙은 도둑의 한심하고 막막한 변명이 뒤섞이며 희극이 된다.

작품특징

<늘근도둑이야기>는 배우 3명이 공연을 이끌어가는 연극으로 배우간의 호흡과 연기력이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대연, 박원상, 최덕문, 서동갑, 민성욱과 같이 <늘근도둑이야기>에 참여했던 극단 차이무의 기존 베테랑 출연진들과 더불어 김승욱, 김뢰하, 이성민, 김학선, 오용 등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손발을 맞춰온 극단 차이무의 간판배우들이 총출동하여 공연하고 있다.

이번 <늘근도둑이야기>에 출연하는 배우들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배우이기도 하다. 영화 <반칙왕><가문의 영광>,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에서 편안하면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김승욱, 드라마 <대물><추노>등에서 강렬한 연기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대연, 영화 <살인의 추억>과 <달콤한 인생>에서 개성 넘치는 연기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던 김뢰하, 영화 <부당거래>와 드라마 <파스타>까지 폭 넓은 연기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성민, 영화 <화려한 휴가><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 다수의 영화에서 주인공 못지않은 명품조연으로 관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박원상을 비롯해 대학로를 대표하는 9명의 연기파 배우들도 함께했다.